

8 인터뷰-대한민국 정치를 향해 날카로운 평론을 하는 전원책 동문(법학 75)



그는 인생의 위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용기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진=서세종 기자)

“좋은 길, 나쁜 길은 없다. 다만 정도(正道)를 걸어라.”

서세종 기자 sejong0362@knu.ac.kr

대회는 함께 살아가는 타인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임과 동시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신문은 각 분야에 진출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나 자신과 마주 보려 합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붓는 전원책 동문(법학 75)을 만나 그의 사상과 신념,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논객의 대표주자인 전 동문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평론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함께 토론하는 모습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성역 없는 비판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은 그는 이것이 “사방의 적을 두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믿었기 때문이다”

전원책, 그의 대학 시절

그의 나이 67세, 대학생 활동은 사십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가 경희대학교 신입생이던 당시 몇 년에 걸친 재수로 그의 고등학교 동기는 4학년에 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구 400’을 쳤더니 그는 “당구장에 가면 나는 신적 존재였다”며 신입생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당구도 끊고 1학년 2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며 “내가 사법시험 모의시험을 두 번을 1등 해서 신태식 학장님이 되게 좋아하셨다”고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쉬움이 컼던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다닐 때 입학식도 안 갔다. 자존심이 상해서”라고 말하는 한편,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손해야 한다는 것을 경희대에서 배웠다”고 애교심을 드러냈습니다. 덧붙여 그는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나왔으면 그냥 부장검사로 마치고 변호사 하다가 인생 종쳤을 거다”며 “그래서 나는 경희대학교가 참으로 좋은 대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업난의 양면

자신의 청년 시절을 회상하던 전 동문은 “우리 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도 못 한다”며 청년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손길승 SK 명예회장은 다른 곳에서 만 육천 원 줄 때 구천 원 밖에 안주는 선경직률에 들어가서 SK를 함께 만든 분이다”며 “그것도 서울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랬다”고 청년들의 각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견, 중소기업 직원들에 대한 아쉬운 처우와 낮은 사회적 인식 또한 지적했습니다. 그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며 “대학 졸업생들에게 걸맞은 전문직을 그만큼 늘려 놓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또 그 반대로 능력도 안 되는데 눈높이만 높여 놓는 청년들의 문제도 있다”고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멕시아비맨 전원책

전 동문은 참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대학 시절 시인으로 등단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생활에 이어 정치평론가로 그리고

뉴스 앵커로도 활동했습니다. 어느 직업에 가장 애착이 가느냐는 질문에 그는 “가장 좋았던 시절은 없다”며 “매사가 힘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돈을 보수로 받고 변호사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시를 쓰는 것도 힘들다”며 “정치 평론이라는 것도 사방에 적을 만드는 거야”라며 한탄했습니다. 이어 그는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실컷 놀고, 개관 치고, 술도 먹고, 연애도 하고, 남들 다하는 그림도 그려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관에 대해 더 깊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길이 있다”며 “무슨 직업을 가져도 난관은 있기 마련이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그러한 위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용기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려려면 젊은 시절에 사생관이 있어야 하는데, 남자들은 사생관이 군대에서 뚜렷하게 생긴다”며 “군대가 참 좋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농담이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며 진지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도(正道)를 걸어라”

마지막까지 그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길이 좋고 나쁘다는 게 없다”며 “다만 정도(正道)를 걸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직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빛이 나고, 용기를 가지면 더 빛이 나고 거기다 결단력까지 소유하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것이다”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 동문은 많은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6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 것 같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썰전>에서 보다 주름지고 늙어버린 것 같은 얼굴에서 나오는 아쉬움은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깊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행간을 짐작할 뿐입니다. 전원책 그는 마치 한 권의 책 같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인내력부터 단결심, 사물을 보는 시각 그리고 정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며 “무엇보다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고 이어갔습니다.